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6 in A major, WAB 106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곡 시기: 1879년 9월 24일 –1881년 9월 3일
초기 연주: 1883년 2월 11일 Vienna에서 Wilhelm Jahn이 지휘한 Vienna Philharmonic이 Adagio와 Scherzo만 공개 연주했다. 전곡의 첫 공개 연주는 1899년 2월 26일 Gustav Mahler가 지휘한 축약 · 수정판이었다 .
장르: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헌정: Anton von Oelzelt-Newein 부부

IMSLP 작품 정보

Wikipedia 작품 개요

Anton Bruckner의 A장조 교향곡 제 6번은 네 악장으로 된 관현악 교향곡이다 . ‘Majestoso’, ‘Adagio. Sehr feierlich’, ‘Scherzo. Nicht schnell; Trio. Langsam’,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의 순서가 전체 진행을 이룬다. 작곡가 생전에 공개된 것은 가운데 두 악장뿐이었고 , 1899년 전곡 초연은 Mahler가 상당 부분을 줄이고 관현악을 손본 형태였다. 이 작품의 구조와 수용을 이해하려면 1881년 자필 텍스트와 사후 공연판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Bruckner가 1879–81년에 남긴 자필 악보가 작품의 기준 텍스트다. 1899년 Ludwig Doblinger의
Cyrill Hynais 초판에는 후대의 컷과 변경이 들어갔다.
Robert Haas의 1935년 판, Leopold Nowak의 1952년 판, Benjamin-Gunnar Cohrs가 편집한
2016년 A06 Urtext는 각각 자필과 초기 연주 자료를 다루는 목적이 다르다. 1899년 초판을
Bruckner가 사후에 승인한 개정판으로 보지 않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55–60분이다. 출판사 자료는 60분으로 안내하고, 녹음은 판본과 템포에 따라 약 53–60분의 범위를 보인다.

편성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 팀파니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작곡과 자필 악보

다른 교향곡에서 보이는 장기간의 재손질과 달리, Bruckner는 1879년 9월 24일부터 1881년 9월 3일까지
비교적 집중된 기간에 이 교향곡을 완성했다. 자필 스캔의 주석은 제 1악장을 1879년 9월 24일 –1880년 6월 9 일, Adagio를 1880년 11월 22일, Scherzo를 1880년 12월 17일 무렵, Finale를 1881년 6월 28일 ·7월 4일
· 9월 3일로 나눈다. Benjamin-Gunnar Cohrs는 이 작품이 Bruckner 교향곡 가운데 작곡가 자신의 대폭
개정이 적은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Bruckner가 제 6번을 ‘가장 대담한 ’이라는 뜻의 ‘keckste’라고 불렀다는 말은 Karajan 재단과 WDR의 작품 안내에 전해진다. WDR은 다른 교향곡에서 흔한 현악 트레몰로 대신 첫 악장이 악센트 리듬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이 표현과 연결한다. 이 별명은 자필 악보에 적힌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곡가에 관한 전승이므로 , 작품의
형식과 음향에서 확인되는 특징과 구분해 다룬다.

중간악장의 공개와 전곡 초연

완성 뒤 Vienna Philharmonic이 1882년 10월 6일 신작 읽기 연주를 준비했고, 그때 사용한 필사 파트에는 Bruckner의 자필 수정과 연주자의 연필 표시가 남았다. 1883년 2월 11일 Vienna Musikverein에서 Wilhelm Jahn이 지휘한 공연은 Adagio와 Scherzo만 공개했다. Bruckner가 생전에 전곡을 들은 기회는 이 공연이
아니라 별도의 전체 오케스트라 리허설 한 번이었다.

1899년 2월 26일 Gustav Mahler는 Vienna Philharmonic과 함께 네 악장을 처음 공개했지만 , 곡을 크게
줄이고 관현악을 조정한 형태를 사용했다. 동시대와 후대 자료는 변경 정도를 다르게 평가한다. 일부 연구
자료는 Mahler판의 컷과 변경을 강조하고, Berliner Philharmoniker의 수용사 해설은 편성 변경을 ‘barely retouched’라고 완화해 표현한다. 두 서술은 Mahler판이 Bruckner의 원전과 다른 공연 텍스트라는 점에서 만난다.

1901년 3월 14일 Stuttgart에서 Karl Pohlig가 지휘한 전곡 공연은 Bruckner의 악보에 가까운 형태를 처음 들려준 사례로 널리 기록된다. 일부 연구 자료는 1901년 12월 Vienna 공연도 초기 원전 연주 계보에 넣는다. 자료에 따라 Stuttgart 3월과 Vienna 12월이 제시되지만 , 두 기록 모두 1901년이 사후 원전 수용이 본격화한 시기였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35년 10월 9일 Paul van Kempen과 Sä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의 Haas판 연주는 Bruckner가 적은 방식에 따른 무삭제 연주로 별도 기록된다.

판본과 연주 파트

1899년 Doblinger 초판은 Cyrill Hynais가 준비했지만 , 인쇄 과정에서 Bruckner 자필과 다른 변경과 오류가 들어갔다. 1935년 Robert Haas는 1881년 자필에 가까운 Alte Gesamtausgabe 판을 만들었고, Leopold Nowak은 1952년 Neue Gesamtausgabe에서 이를 다시 편집했다.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가 제공하는 1986년 Haas–Nowak 비평보고서는 자필과 1899년 인쇄본 사이에 오케스트라 음향을 맞추기 위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Cohrs가 2016년에 편집한 A06 Urtext는 구조를 새로 만들지 않고, 자필과 초기 파트에 남은 아티큘레이션과
텍스처 정보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Cohrs는 1882년 읽기 연주와 1883년 중간악장 공연에 사용된 필사
파트를 St. Florian과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의 자료에서 다시 찾아냈다. 자필 수정과 연주자의 연필 표시는 서로 다른 기록이므로 각각의 자료 성격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네 악장의 진행

I. ‘Majestoso’ – A장조

제 1바이올린이 악센트가 분명한 리듬을 반복하고,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어둡고 무거운 성격의 주제를
아래에서 드러낸다. 이른바 ‘Bruckner 리듬 ’은 한 가지 박자표가 아니라 상부의 4박 흐름과 저음의 더 빠른 6 분할이 겹치는 방식이다. 제시부에서 밝은 장조와 단조 기운이 있는 주제가 교차하고,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쳐 세 번째 주제가 장대한 코다로 모인다.

II. ‘Adagio. Sehr feierlich’ – F장조

장중한 현악 주제가 탄식하는 오보에 대위와 나란히 흐른다. 이어 밝은 노래 주제가 나타나지만 , 단조의 장송 행진과 조용한 팀파니 타격이 음악을 어둡게 돌린다. 두 주제가 다시 고조된 뒤 행진은 짧게 끊기고, 긴장이 가라앉는 코다가 남는다.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작품 해설은 이 악장이 뒤이어 작곡된 제 7번 교향곡 Adagio의 모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III. ‘Scherzo. Nicht schnell; Trio. Langsam’ – A단조 중심

‘Nicht schnell’이라는 지시는 빠르기보다 무게와 추진 방식에 초점을 둔다. 스케르초의 어두운 아이디어와
갑자기 돌출하는 금관이 첫 악장의 운동감을 되살리고, ‘Trio. Langsam’에서는 현악 피치카토와 호른의 사냥 · 군악적 색채가 느린 공간을 만든다. 트리오 뒤에 스케르초가 돌아오면서 두 성격의 대비가 다시 압축된다.

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 A장조

피날레는 A단조의 어두운 성격을 품은 개시부에서 출발해 A장조를 향한다. C장조의 두 번째 주제, Adagio 에서 들었던 오보에의 탄식, 제 1악장 주제의 귀환이 서로 다른 방향의 긴장을 만든다. 마지막 전합주에서
장조가 회복되지만 , 가까이 남은 단조의 기억 때문에 결말의 승리는 한 번에 확정되지 않는다. Simon Rattle과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Cohrs판 녹음 북클릿은 이 결말을 ‘모호한 승리 ’로 해석한다.

음향과 수용의 관점

제 6번은 약 55–60분으로 Bruckner의 후기 교향곡 가운데 비교적 짧고, 외곽 악장의 진행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현악의 반복 리듬, 금관 코랄, 오보에의 대위, 팀파니의 제한된 사용이 네 악장의 대비를 만든다. 관현악 목록은 1881년 원전과 후대 판본에서 대체로 유지되지만 , Mahler판의 컷과 더블링 조정, Haas·Nowak·Cohrs 판본의 아티큘레이션 표기가 실제 음향의 밀도와 흐름을 달라지게 한다.

1883년 2월 13일 Eduard Hanslick은 Neue Freie Presse에 Adagio와 Scherzo를 듣고 관심과 당혹감이 교차했다고 썼으며, Scherzo를 ‘기이함으로 사로잡는 ’ 음악처럼 평가했다. 이 평론은 특정 공연에 대한 동시대 반응이다. WDR의 후대 해설은 같은 대목을 어두운 연속과 번쩍이는 금관의 교차로 풀어 쓰며, 첫 악장의 리듬이 피날레에서 되돌아와 처음과 끝을 잇는다고 설명한다.

녹음과 레퍼토리의 정착

Herbert von Karajan은 Berlin Philharmonic과 1979년에 스튜디오 녹음을 남겼으며, 공식 안내는
그가 이 교향곡을 라이브로는 지휘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Georg Tintner와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의 1997년 Naxos 발매는 Robert Haas가 편집한 1881년 판을 사용한 녹음으로 식별된다.
Bernard Haitink와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7년 5월 Munich 실황은 BR-KLASSIK 900147로 발매되었고 총 시간은 55분 15초다.
Simon Rattle과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2019년 1월 Barbican 녹음은 Cohrs A06 Urtext를 사용한 첫 녹음으로 LSO Live가 소개한다.
Thomas Dausgaard·Bergen Philharmonic의 2020년 BIS-2404 발매와 Markus Poschner·Linz Bruckner Orchestra의 2021년 Capriccio C8080 발매는 각각 1881년 Haas 계열 판을 사용한
후대 기록이다.

주요 자료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Symphony No. 6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Haitink 음반 해설

Benjamin-Gunnar Cohrs, 필사 파트 재발견 보고

Herbert von Karajan 공식 작품 안내

WDR Sinfonieorchester 작품 해설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ANNO, 1883년 Hanslick 비평

Gilles Houle, Anton Bruckner 1875–1885

Crawford Howie, Bruckner Journal 12/3

Hyperion/LSO Live, Rattle·Cohrs A06

BIS/Chandos, Dausgaard 음반

Naxos, Georg Tintner 음반

Naxos/Capriccio, Markus Poschner 음반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19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19 UTC by □□□